

經濟危機打開을 위한  
經常收支黑字 擴大 方案

1998. 6. 1

韓國經濟研究院

## 머릿말

우리경제는 지난 해 12월, 모라토리움 사태가 우려되던 급박한 외환위기상황을 벗어나면서 올 3월이후 환율과 금리가 안정추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새정부는 금융과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평가는 매우 유보적인 상태이다. 초기에 빈번히 제기되었던 정책혼선과 우선순위의 혼조문제와 더불어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구조개혁의 비용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금융경색과 실물침체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경제전부문에 걸쳐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내수위축하에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가동율이 크게 떨어져 설비투자가 절반이나 감소하고 심지어는 가동이 중단된 생산설비를 내다팔고 있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로 1-2년후, 국내에서 효율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산업 및 기업간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기업가가 자신감을 회복하여 IMF 이전의 잠재생산능력을 다시 갖추는 데에는 몇배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현재와 같은 수요부진과 투자감소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잠재성장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실업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같은 경제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경제계는 연초이래 경상수지 흑자확대방안을 제기하여 왔으며 동 보고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작성된 자료를 다소 수정하고 최근까지 정부가 발표하였거나 향후 추진이 예고된 수출 및 투자진흥방안을 추가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모쪼록 당면한 수출애로가 시급히 해소됨으로써 원활한 수출활동을 통한 경상수지흑자를 토대로 우리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 要約 >

- 최근 經常收支黑字가 지속되고 短期外債의 中長期轉換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다소 安定되고 있으나, 여전히 金融 및 企業部門의 부실화가 진행중이며 失業이 急增하고 있음.
-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켜 잠재성장 능력을 급속히 약화시킴으로써 향후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 韓國의 過剩生産能力 保有에 대한 外國의 경계심이 높은 반면, 낮은 設備 稼動率로 인한 企業의 固定費用負擔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外換危機와 失業問題를 동시에 解決하기 위해서는 향후 적어도 1~2년간 現 生産設備의 稼動率提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 輸出增大노력을 통하여 經常收支黑字를 대폭 示現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唯一한 활로임.
- 해외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환율도 안정화 되고 있어 현재의 輸出關聯金融의 硬塞이 조기에 해소되는 경우, '98年中 400억불 내외의 經常收支黑字가 豫見되나,  
  
우선 정부에서는, 企業들이 의욕적으로 輸出에 매진할 수 있도록 隘路要因을 解消하여 주고,  
  
다음으로, 企業들도 新規設備增設을 자제함으로써 資本財輸入을 最小化하고 不要不急한 消費財 및 內需用原資材의 輸入을 最小化한다면,

500억불 내외의 黒字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經常收支黒字 500억불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 첫째, 輸出支援用으로 최소 50억불규모의 외화 확보,
  - 둘째, 한국은행의 中小企業 무역어음 재할인 한도 확대 및 용자 단가와 비율의 인상을 포함한 輸出入金融의 지원 확대,
  - 셋째, 輸出入銀行, 産業銀行 등 國策銀行의 수출입금융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 넷째, 貿易特別委員會의 設置 등 經常收支 500억불 달성을 위한 官民共同推進體制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 차

I. 經濟危機의 現況 및 問題點 .....	1
1. 景氣沈滯의 長期化와 成長減速 .....	1
2. 賣出鈍化 및 高金利 등에 따른 採算性惡化와 不渡增加 .....	2
3. 外換·金融市場의 不安定 지속 .....	5
4. 低成長에 따른 失業增大 등 경제 부작용 深化 .....	7
5. 불확실한 輸出回復勢 .....	8
II. 經常收支黑字 擴大를 위한 對策 .....	11
1. 基本方向과 期待效果 .....	11
2. 黑字展望 및 實現 可能性 .....	13
3. 支援方案 .....	15
4. 經常收支黑字 擴大를 위한 對策 및 政府의 推進現況 .....	18
5. 附表 및 圖表 .....	21

<표차례>

(표1) 수출증가율 추이 .....	1
(표2) 경상수지 추이 .....	1
(표3) 12월결산 상장회사의 상반기 매출액 및 순이익 변동추이 .....	2
(표4) 대외교역조건추이 및 전망 .....	3
(표5) 금리추이 .....	3
(표6) 부도지표의 추이 .....	4
(표7) 한국의 신용평가등급 추이 .....	5
(표8)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	7
(표9) 산업생산동향 .....	7
(표10) 산업별 수요감소 현황(1-2월중) .....	8
(표11) 최근의 무역수지 및 수출입 추이 .....	8
(표12)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수입추이 .....	9
(표13) 경상수지의 전망 .....	13

<그림차례>

(그림1)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GDP이동평균치의 추이 .....	2
(그림2) 상장사 제조업체의 금리상승 % 포인트별 적자 업체수 .....	4

# I. 經濟危機의 現況 및 問題點

## 1. 景氣沈滯의 長期化와 成長減速

- 현재 우리경제는 87년 하반기 이후 10년간에 걸친 長期的 景氣下降국면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최근에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
- 90년대 전반기중 지속된 엔고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過大評價. 즉, 엔화가치가 90년 5월 154엔/\$ => 95년 4월 84엔/\$으로 절상된 반면 기간 중 원화의 대미달러가치는 10%절하된 수준을 유지

(표1) 수출증가율 추이

	92年	93年	94年	95年	96年	97年	98年 1-5월
수출증가율	6.6	7.3	16.8	30.3	3.7	5.3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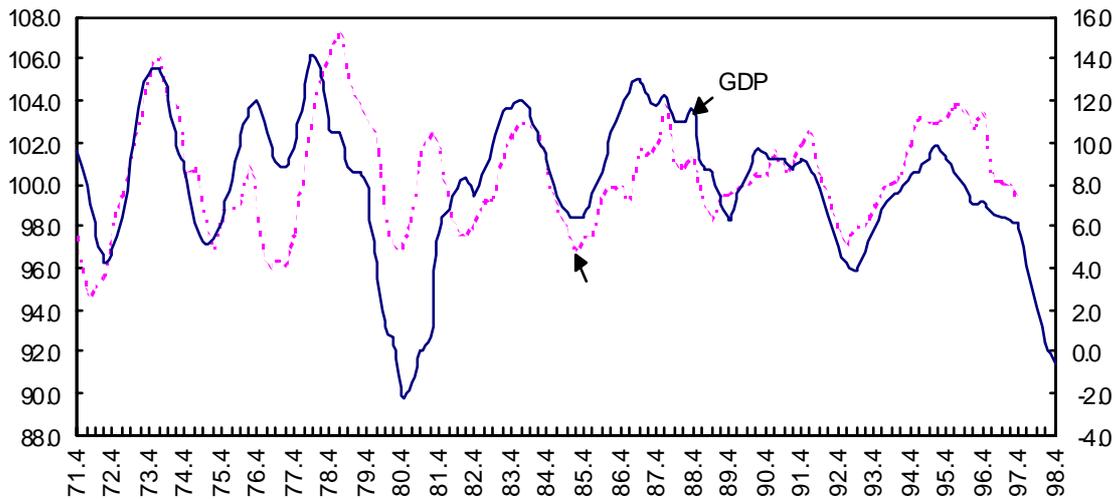
- 95년이후 엔화 및 중국위안화의 절하에 따라 가격경쟁력 약화 =>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성장 둔화

(표2) 경상수지 추이

	92年	93年	94年	95年	96年	97年	98年1/4
경상수지 (억불)	-45.3	3.8	-45.3	-89.5	-237.2	-88.5	136.9
경제성장률 (%)	5.1	5.8	8.6	8.0	7.1	5.6	-3.8

- 89년과 93년의 경기호전은 '주택 2백만호 건설'과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일시적 현상

(그림1)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GDP이동평균치의 추이



## 2. 賣出鈍化 및 高金利 등에 따른 探算性惡化와 不渡增加

- 장기에 걸친 경기수축으로 매출둔화와 채산성악화가 가시화되면서 부도 증가 추세

(표3) 12월결산 상장회사의 상반기 매출액 및 순이익 변동추이

(단위 : %)

	95年	96年	97年
매출액 증감률	25.46	18.60	14.22
반기순이익 증감률	42.05	-40.22	-28.45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한편 수출기업중심으로 매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단가가 최근 2년간 1/3정도 하락함에 따라 기업채산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음.

- 반도체(16MDRAM)의 경우, 95년 말 50.6\$/개에서 97년말 현재 5\$/개수준으로 하락하고 64MDRAM의 경우에도 공급과잉으로 20\$/개(bit-cross발생)수준으로 하락

- 96년의 경우 수출단가 하락률은 13.4%이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하락률은 5.9%임.
- 해외 가격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로 최근 원화환율의 가파른 상승에 불구하고 우리상품의 추가적인 단가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표4) 대외 교역 조건 추이

	수출단가지수	수입단가지수	교역조건
95년간	100.0	100.0	100.0
96년간	86.6	98.8	87.7
97년 1/4	77.9	98.6	79.0
2/4	76.2	93.6	81.4
3/4	72.4	94.0	77.0
4/4	66.5	88.5	75.1
97년간	72.8	93.6	77.8
98년 1/4	62.8	84.3	74.5

주 : 기준년도 1995년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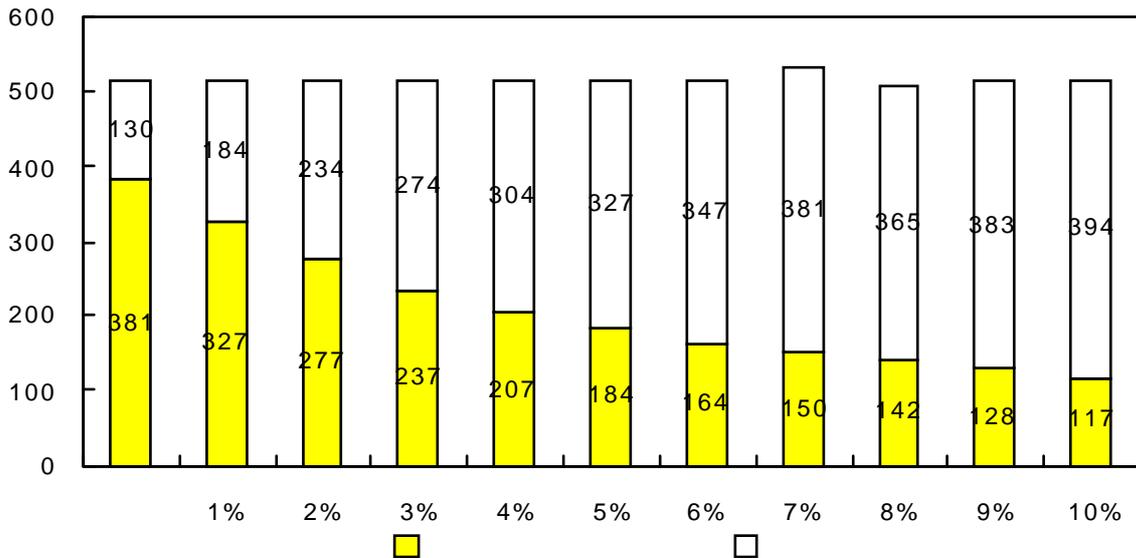
- 98년중에도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은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국내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함으로써 채산성 악화가 가중될 것임.
- 고금리 지속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부도 급증
- IMF 구제금융신청이후 금리는 2배 이상으로 급등하여 기업 도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표5) 금 리 추 이

	96년	97년	97.10월	97.11월	97.12월	98.1월	98.2월	98.3월	98.4월
회사채 수익률	11.9	13.4	12.5	14.1	24.3	23.4	19.8	19.0	18.1

○금리상승이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금리가 10% 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적자기업이 3배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2) 상장사 제조업체의 금리상승 % 포인트별 적자 업체수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특히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건설한 기업이 일시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산업기반의 붕괴 우려

(표6) 부도지표의 추이

	96年	97年 1/4	2/4	3/4	4/4	98年 1/4	4月
어음부도율 (금액기준,%)	0.14	0.23	0.23	0.25	0.80	0.54	0.42
부도업체수 (개)	11,589	3,443	3,790	3,834	6,101	9,449	2,462

자료: 한국은행

### 3. 外換 · 金融市場의 不安定 지속

- 고금리, 매출부진, 교역조건의 악화 ⇒ 경쟁력 약화 및 기업채산성 악화 ⇒ 기업부도 증가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 금융기관구조조정 ⇒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고실업 등의 악순환 발생
  - 이는 환율안정을 위한 IMF의 고금리 정책이 외자유입을 유도하는데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음을 반영
  - 기업 부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 고금리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고금리는 외화유입을 유도하기 보다는 국내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뉴욕외채협상에 따른 단기외채의 증장기전환이 지난주중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전환비율 98%) 외환보유고도 5월말 현재 387억불에 달하게 됨에 따라 외환시장은 다소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불안요인은 상존
  - 국내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평가는 불만족스런 수준으로 국제신인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표7) 한국의 신용평가등급 추이

	97.10.23	97.11.25	97.12.11	97.12.23	98.2.17
한국의 신용평가등급 (S&P사)	AA <sup>-</sup>	A <sup>-</sup>	BBB <sup>-</sup>	B <sup>+</sup>	BB <sup>+</sup>

- 인도네시아 외환위기의 악화 및 하반기중 예상되는 중국위안화의 절하 등으로 인한 아시아 통화위기가 재현될 가능성 증가
  
- 시장실세금리는 최근 다소 내렸으나 여전히 18%내외(회사채수익률기준)의 고금리를 유지

- 전반적으로 자금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실세금리인 회사채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책금리(R/P적용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실세금리의 추가인하가 억제되고 있음.
- 환율폭등으로 인한 물가과급에 따라 5월중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비 15.7%이상 상승하는 등 고물가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획기적 조치가 없는 한, 추가적 금리인하는 하반기이후 실현가능할 것으로 전망

#### 4. 低成長에 따른 失業增大 등 경제 부작용 深化

- 기업의 부도증가로 인해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실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표8)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96年	97年間	97.12	98.1	98.2	98.3	98.4
실업률 (%,계절조정)	2.3 (2.3)	2.6 (2.9)	3.1 (3.1)	4.5 (4.1)	5.9 (4.7)	6.5 (5.3)	6.7 (6.1)
실업자수 (만명)	42.5	55.6	65.8	93.4	123.5	137.8	143.4

- 산업생산기반의 약화

(표9) 산업생산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95년	96년	97년	97년 상반기	3/4	4/4	98년 1/4	4월
산업생산	12.0	7.3	6.9	6.6	8.8	5.5	-7.8	-10.8
중화학	15.7	10.5	11.2	11.0	13.9	9.2	-5.5	-8.7
경공업	0.9	-1.0	-5.8	-6.1	-5.1	-6.0	-16.0	-19.1
출하	12.6	7.6	5.0	4.5	8.0	3.2	-7.5	-11.6
내수	10.0	6.9	1.0	2.7	2.6	-3.5	-22.1	-26.5
수출	20.3	9.7	16.1	9.7	23.7	21.3	30.5	28.3
재고 <sup>1)</sup>	12.6	14.7	5.3	10.1	3.0	5.3	-4.7	-6.6
평균 가동률 <sup>2)</sup>	81.0	81.8	79.9	80.5	80.6	78.0	67.3	68.3
생산능력	9.3	7.7	5.8	6.4	5.3	5.2	3.6	9.3

자료: 통계청

- 1)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 2) 평균가동률은 계절변동조정임.

(표10) 산업별 수요감소 현황(1-2월 중)

	내 수	수 출	비 고
가 전	-30%	-20%	가전3사대리점 5천여개 중 200여개소 폐쇄
정보통신 가입자수	월평균 20만→3만		중소벤처업체 부도가능성 증대
반도체	-	11.6%	64MDRAM 비중의 증가
자동차	-53%	1%	가동률 30~40% 수준
조 선	수주량 전년비 30% 수준		선수금환급 보증난
철 강	-50% 수준	20~30% 증가	○47사중 11개사 부도 ○저가수출 증대 ○생산 25% 감소
석유화학	-20~30%	3%	○재고 30% 증가 ○금융기관의 유산스 기피
섬 유	-20% 수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5. 불확실한 輸出回復勢

- 최근 7개월간 무역수지가 연속적인 흑자를 보인 것은 수출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입의 감소에 주로 기인

(표11) 최근의 무역수지 및 수출입 추이

		무 역 수 지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97년	11월	1.24억불	3.8	-12.4
	12월	22.12억불	1.7	-24.9
98년	1월	14.77억불	-0.3	-39.8
	2월	32.13억불	19.9	-30.2
	3월	37.11억불	6.6	-35.9
	4월	39.08억불	6.6	-35.6
	5월	37.67억불	-2.6	-37.5

- 특히 올해 1-2월의 수출증가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수입된 금수출을 제외할 경우 실제 수출 증가율은 크지 않음.

- 수출을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 감소는 장차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

(표12)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수입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97.12	98.1	98.2	98.3	98.4	98.5*
원자재	-18.9	-36.8	-33.3	-35.2	-32.1	-28.4
자본재	-29.9	-41.9	-23.8	-36.3	-38.3	-33.8
소비재	-34.0	-47.4	-35.7	-37.5	-42.6	-37.4

\* 5월 20일까지 자료

- 지난해 말 외환위기 이후 외환부족과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입신용장 개설의 어려움으로 원자재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은 정상을 찾고 있으나 연지급에 의한 신용장 개설은 여전히 어려움.

－ 수출애로 요인

- 수출 역시 일람불 신용장 방식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상수출이나 D/A 방식의 수출 방식을 은행이 기피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출업체들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되고 있음.
  -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무역금융융자비율(여신약정비율)에 묶이고 환어음 외에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출단가의 하락

- 환율상승으로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는 오히려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앞의 표4참조)

- 동남아 시장의 불확실성

- 동남아의 외환위기 지속으로 이들 시장에의 수출 전망 불투명
-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절하될 경우 동남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경기침체 확산 가능성

## Ⅱ. 經常收支黑字 擴大를 위한 對策

### 1. 基本方向과 期待效果

#### 1) 基本方向

- 최근 4~5개월간 經常收支黑字가 지속되고 短期外債의 中長期轉換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다소 安定되고 있으나, 여전히 金融 및 企業 部門의 不실화가 진행중이며 失業이 急增하고 있음.
- 특히, 日本 엔貨 弱勢와 中國 위엔貨 切下壓力이 커짐에 따라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黑字基調의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음.
- 현상황의 장기화 또는 중장기적 해결방안 추진은 결과적으로 실물경제 기반을 잠식하고 자율성장능력을 급속히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선진경제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됨.
- 韓國의 過剩生産能力 保有에 대한 外國의 警戒심이 높은 반면, 낮은 設備 稼動率로 인한 企業의 固定費用負擔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外換危機와 失業問題를 동시에 解決하기 위해서는 향후 적어도 1~2년간 現 生産設備의 稼動率提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 輸出增大노력을 통하여 經常收支黑字를 대폭 示現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唯一한 활로임.

#### 2) 期待效果

##### ① 稼動率提高를 통한 雇傭의 擴大

- 生産能力擴大를 위한 設備投資를 자제하고 現 生産設備의 稼動率을 높

임으로써 고용을 확대

○輸出增大를 통한 設備稼働率 제고를 위해서 소모성 부품의 輸入增加는 불가피하나 生産能力擴大를 위한 資本財輸入은 최대한 자제될 수 있음.

○交代勤務組의 확대 등을 통해 현 설비의 稼働率을 提高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雇傭增大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製造業 設備稼働率은 68% 이하이며 내수 물량감소가 20%에 달함으로써 30%정도의 輸出物量 增加는 새로운 設備能力의 확충없이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달성 가능할 것임(附表 5).

## ② 過剩生産能力保有에 대한 警戒心 緩和

— 資本財輸入 減少 및 生産能力増設 自制로 한국의 過剩生産能力 保有에 대한 外國의 警戒心을 완화시킬 수 있음.

## ③ 對日赤字의 縮小

— 資本財輸入 減少로 對日赤字의 縮小가 가능(附表 9)

○ 제시된 방안에 의한 500억불 흑자달성의 경우, 對日貿易赤字는 '96년(157억불), '97년(130억불)에 이어 '98년중에는 43억불 내외로 크게 減少할 수 있음.

## ④ 對外信認度の 提高

— 500억불 黒字는 예상 GDP의 15%내외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의 對外信認度を 크게 提高

○ 對外負債中 금년에 500억불을 償還한다면 對外信認度は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 黒字展望 및 實現 可能性

### 1) 展望

- 지난해에 비해 輸出이 약 220억불(15.6%) 늘고 輸入은 약 320억불(-22.8%) 줄고 貿易外 및 移轉收支赤字가 10억불 내외에 그친다면 98年中 經常收支는 지난해보다 580억불 改善된 500억불 내외의 黒字實現이 가능함(附表 1).

(표13) 경상수지의 전망

	수출	수입	무역수지	경상수지
97년(A)	1386	1425	-39	-86
98년(B)	1601	1099	502	493
B - A	215	-326	541	579

※ 단위: 억불

### 2) 實現 可能性

#### 가. 輸出

- 전체 輸出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500大 企業의 올해 輸出增加率 目標(附表 2)는 19.8%(1640억불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분기 輸出蹉跌을 考慮하면 전체적으로 年中 16.9%(1600억불 내외)의 輸出增加率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나. 輸入

- 國際 原資材價格의 안정과 國內 設備投資의 急減傾向에 輸入自制 노력이 가세한다면 98年中 輸入(附表 3, 4 및 6)은 지난해 보다 320억불 내

외 줄어든 1100억불 내외로 抑制될 수 있음.

- 原資材: 海外原資材의 안정과 内需萎縮으로 약 9% 내외의 輸入減少 豫상
  - 세계수요부진으로 1次產品(원유, 가스, 석탄, 비철금속 등) 價格下落 豫想, 특히 國際原油價가 크게 떨어져 이 부문에서 70~80억불 節減 가능(附表 8)
  
- 資本財: 企業의 新規 및 增設投資의 대폭 減少로 資本財輸入은 지난해의 절반수준에서 自制될 수 있음.
  - 실제로 資本財導入을 위한 財源調達에 있어 外貨貸付, 借款, 企業의 現金과 리스자금의 활용 등에서 크게 制約을 받음에 따라 資本財導入 減縮 불가피
  -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財 수입중 기계·장치류의 수입을 절반수준(47.4%)으로 줄인다면 이 부문에서만 60억불 내외의 節減이 가능(附表 9)
  - 全經聯의 조사결과(附表 7)에 따르면, 企業들은 98年中 製造業은 42.3%, 그리고 産業全體로는 30.1%의 投資縮小를 계획하고 있음.

#### 다. 서비스 및 資本收支

- 서비스 및 投資收益收支는 觀光 部門 支出이 현재와 같이 自制되고 移轉收支가 黑字로 유지되는 경우, 外債利子支給의 增大에도 불구하고 10~15억불정도의 赤字에 그칠 것으로 豫想됨.
  
- 資本收支면에서는 국내자본시장의 開放擴大로 '98年中 150억불 이상의 資本導入이 豫상되는 반면 국내기업의 海外投資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 經常收支黑字분 500억불은 外債償還用途로 사용 가능할 전망

### 3. 支援方案

#### 1) 輸出入金融의 擴大

##### — 輸出入 決濟用 外貨資金 確保

○ 수출금융 지원용으로 50억불 규모의 외화자금 확보(추후 외환보유고 증대시 100억불로 확대)(圖表 1 및 附表 10)

\* 현재 정부는 IBRD 지원자금 등을 포함하여 30억불 규모의 자금을 수출금융 지원용으로 확보할 계획

\* 태국의 경우 수출지원용으로 115억불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

##### — 韓國銀行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

○ 중소기업 무역어음 再割引 한도 확대 및 貿易金融 용자단가·비율 인상

##### — 換價料 및 外換手數料 등 貿易金融費用 引下 유도

##### — D/A 수출환어음 매입 및 Usance 信用狀 開設(수출용 원자재 구입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 輸出入銀行 및 産業銀行에 수출금융 지원용 外貨資金 일부를 배정하고 무역금융 취급 특별창구 개설

○ 유산스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360일로 연장(현재 6月末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360일까지 정상결제로 허용)

##### — 해외 각국의 輸出支援 자금 확보

- 原資材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외 각국의 輸出入銀行 등 수출지원기구에서 공여하고 있는 輸出信用을 확보

## 2) 國策銀行의 輸出入金融 支援 機能 擴充

- 一般銀行의 輸出入金融 공급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國策銀行의 輸出入金融 지원 기능 확충이 시급

- BIS기준 충족 및 해외신용평가의 상향조정 지연에 따른 外貨資金 부족 등으로 一般銀行의 輸出入金融 위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産業銀行의 商業金融 및 貿易金融 支援 기능 확대

- 資本金 1조원 증액(政府의 保有株式 출자)을 통해 상업금융 기능 확충 및 무역 관련 여신 기능을 확대

\* 현 納入資本金 3조 6,700억원

- \* 現物出資한 資本金을 貸出財源으로 활용하기 위해 貸出받는 企業이 대출금의 일부분을 産銀 保有株式 매입에 사용토록함. (예, 대출수혜 기업은 대출금의 3~5% 상당의 주식을 매입, 이경우 공기업의 國民企業化에도 기여)

-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대한 韓國銀行에서의 再割引 허용

- 거래기업을 施設資金貸出 受惠業體에서 一般企業으로 확대

- 輸出入銀行의 資金供給 확대 및 기능 확충

- 資本金 1조원 증액(政府의 保有株式 出資)을 통해 輸出入 관련 貸出·保證 증대

- \* 현 納入資本金 1조 1천억원
- 短期 貿易金融업무 취급 허용
- \* 현재 6개월 이하의 무역금융 취급 불허
- 輸出入 決濟用 外貨資金 轉貸 취급 허용(국제기구지원자금 일부 배정)

### 3) 經常收支 500억불 達成을 위한 政府支援體制 構築

#### — 經濟部處 長官의 적극적인 輸出 독려

- 경제부처 장관의 海外 現地 마케팅 활동 강화
- 현지 輸出隘路의 파악 및 政策反映 노력 강화

#### — 貿易特別委員會 設置

- 輸出擴大와 輸入節減을 지속적으로 推進하기 위한 5인 내외의 民官合同貿易委員會(관련경제부처 장관급 3인, 민간부문 2인 내외)의 設置·稼動

#### — 政府部門의 不要不急한 資本財 輸入 자제

#### — 500억불 黑字 달성시 예견되는 通商摩擦에 대비하여 通商外交 강화

#### 4. 經常收支黑字 擴大를 위한 對策 및 政府의 推進現況

지원 분야	내 용	시행 여부
수출입금융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확대 · 용자한도, 용자비율 제한 철폐 · 지원실적:2.9조원(97.11)-> 3.2조원(98.4,잠정)	5/1
	-소기업에 3억불의 수출환어음 매입지원	5/1
	-수입L/C개설자금 지원 · IBRD자금:10억불	4/6
	-해외 수출신용자금 확보 · 미국 GSM자금 15억불 ·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자금 1.5억불 · 호주 수출금융보험공사 자금 3.2억불	4/24 4/6 5/2
	-조달청 비축자금확대 (2,250->3,750억원)	5월
	-수출입은행 40억불의 무역금융지원 · 미국JP모션은행과CSFB은행을 공동주관사로 20억달러 차관도입 · 가용외환보유고20억달러방출	8월말 이전  IBRD자금10억불 공급종료직후
	-수출급증 기업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한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추정매출액"을 산정기준으로 활용	6월시행 예정
	-수출입은행의 산업설비 수출자금 지원 확대	계속추진
	-연지급 수입 대지급금의 일반대출 전환 확대	계속추진
	-외환매매수수료, 환가료 등 인하 유도 · 외환매매수수료 매매기준율:(‘97.11)가감0.4 , (‘97.12)가감5 , (‘98.5)가감1.5-2.5 · 환가료 Libor:(‘97.11)+1-1.5 , (‘97.12)+5.5-15 , (‘98.5)+4.5-7	계속추진
	-무역어음 재할인기간 폐지	가을정기국회처리예정
	-수출입은행은 무역금융 지원 위해 일본서 1,300억엔 도입	5월

지원 분야	내 용	시행여부
세제 및 수수료	-기초원자재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5/1
	-관세사수수료 인하 : 1,423원/\$ --> 1,000원/\$	4/15
	-무역자동화 이용료 50% 할인기간 6개월 연장	4/1, 9월까지 연장시행
	-항운노조 노무독점공급 시정(신설부두 우선 추진)	계속추진
	-보세장치장, 보관료 인하 추진	협의진행중
	-54개 관련법상의 수입절차 전면 재검토 작업	8월까지 개정안 마련
	-외국인 투자 유인제도 보완 · 공단부지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4/1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로 One-Stop 서비스체 구축	4/30
	-M&A 시장 활성화기반 마련 · M&A 거래소 개설(대한상의) · 적대적 M&A 전면허용을 위한 법 개정 시행	4/15 6월중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외국인 투자 유인제도 보완 · 세제감면 확대 : 8년 --> 10년 · 대상범위 확대 : 제조업 --> 고도기술서비스업 포함	차기 임시국회 상정 예정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 추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 설치근거조항 반영	차기 임시국회 상정 예정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조직 및 기능 보강 · “투자진흥본부” 확대 개편 : 1본부 2처 --> 1본부 3처 1센터	6월중
	-‘통상, 투자진흥 종합지원반’을 외교통산부와 145개 해 외공관에 설치, 운영 · 국내기업의 대외통상, 투자활동과 외국기업의 국내 영 업활동 관련 애로를 접수, 처리	4/6

지원 분야	내 용	시행 여부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미개방 및 부분개방 중인 42개 업종의 절반 가량을 개방	5월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12일 입법예고, 8월시행
투자유치 활동강화	-투자유치 세일즈활동 적극 추진 · ASEM 회의시 투자유치 활동 전개 EU, 일본 등의 7개 기업 개별 접촉 · 외국인 투자사절단 유치  · 사절단 유치 및 파견 추가계획 파견계획:미국(6월), 유럽(6월), 싱가포르(8월), 일본(10월) 유치 추진중:EU, 프랑스, 호주 등 · 주요 외국기업인 면담을 통한 투자유치활동 브리티쉬 개스킷, 다우케미칼, Volvo, Ford, GEC, Rothschild, Abitibi 등 20여명	대만(4.12-14,37명) 일본(5.12-16,107명) 벨기에(5.18-19,13명)          4,5월
	-유치대상 업체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 KOTRA에서 382개 타켓기업 발굴	5/20
	-기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 KOTRA의 기 투자기업 사후관리체제 구축	계속 추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교육과정), 문화부(언론매체), 행자부(반상회), 경제부처(자료제공) 등의 홍보활동 지속 전개	계속 추진

## 5. 附表 및 圖表

- 1) 經常收支實績 및 '98年 目標
  - 2) 製造業의 '97年 輸出實績과 '98年 計劃
  - 3) 用途別 輸入實績 및 目標
  - 4) 國別 資本財 輸入의 細部實績 및 目標
  - 5) 製造業 稼動率 推移 및 展望
  - 6) '98年 部門別 輸入展望
  - 7) 産業別 施設投資 '97年 實績과 '98年 展望
  - 8) 原油導入 '97年 實績과 '98年 展望
  - 9) 對日貿易逆調의 內容과 改善展望
  - 10) 輸出 金融 回轉 期間의 推移
  - 11) 韓國經濟의 증장기 경제전망
  - 12) 무역투자진흥에 대한 中間점검
- <圖表 1> 月別 輸出과 買入 外換 殘高 推移

# 1. 經常收支實績 및 '98年 目標

(단위: 억불, %)

	96年	97年	98年		
			産資部	代案(A)	代案(B)
輸 出	1299.7 (4.3)	1385.9 (6.6)	1475 (8.3)	1477 (6.6)	1601 (15.5)
輸 入	1449.3 (12.3)	1424.6 (-1.7)	1225 (-15.3)	1158 (-18.7)	1098 (-22.9)
商 品 收 支	-149.6	-38.7	250	319	502
經 常 收 支	-230.0	-86.2	-	311	493
經常收支/GDP	-4.7	-1.9	-	9.3	14.6

\* '98年度 年平均 換率을 1400원/\$로 가정함.

\* 産資部案은 통관기준, 기타는 국제수지기준임.

\* <代案A>는 金融硬塞과 高金利로 인한 輸出隘路가 타개되는 경우 (이는 換率切下로 인한 輸出增大效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임.

## 2. 製造業의 '97年 輸出實績과 98年 計劃

(단위: 억달러, %)

業 種	應答業體數	'97年 實績		'98年 計劃	
		金額	增加率	金額	增加率
製 造 業	360	706.9	6.1	846.7	19.8
輕 工 業	109	62.3	13.4	76.2	22.2
음 식 료 품	37	8.4	20.9	10.6	26.1
섬유 및 의복	30	41.7	13.8	51.5	23.5
가죽 및 신발	12	8.4	8.5	9.4	11.4
고 무 제 품	9	1.6	15.0	2.0	28.8
나 무 제 품	21	2.2	1.2	2.6	19.2
重 化 學 工 業	251	644.5	5.5	770.5	19.5
종 이 제 품	28	15.7	10.4	17.5	11.1
화 학	45	69.4	11.4	82.7	19.2
정 유	4	47.2	7.1	52.0	10.2
비금속 광 물	33	50.1	-2.1	52.5	4.8
일 차 금 속	37	64.5	10.8	71.6	11.0
일 반 기 계	28	41.7	19.8	50.9	22.0
전기 및 전자	34	193.6	-7	245.5	26.8
자 동 차	28	128.7	5.6	155.4	20.8
조 선	14	33.6	14.3	42.4	26.3

資料 : 全經聯, '98年 3月 조사

○ 500대 製造業중 360개 업체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72%임.

○ 360개 製造業體의 97年 수출액은 707억달러로 조사되었고 '98년에는 전년대비 19.8% 增加되는 847억달러로 나타남.

- 97年 製造業 總輸出額(1,252억달러)중 금번 360개 조사대상업체의 점유비는 56.6%임.

### 3. 用途別 輸入実績 및 目標

(단위: 억불)

		'96年	'97年(A)	'98年(B)	B - A(增加率)
全 體		1503.4	1446.2	1082.1	-364.1 (-25.2%)
消 費 財		169.4	156.0	108.6	-47.4 (-30.4%)
	輸出用	17.0	15.8	18.6	2.8 ( 17.7%)
	內需用	152.5	140.3	90.0	-50.3 (-35.9%)
原 資 材		745.0	762.3	695.8	-66.5 ( -8.7%)
	輸出用	323.1	325.9	380.6	54.7 ( 16.8%)
	內需用	421.9	436.4	315.2	-121.2 (-27.8%)
資 本 財		589.0	527.8	277.7	-250.1 (-47.4%)
	輸出用	146.2	164.3	139.5	-24.8 (-15.1%)
	內需用	442.8	363.6	138.2	-225.4 (-62.0%)

#### 4. 國別 資本財 輸入의 細部實績 및 目標

(단위 : 억불)

	총 계			일 본			미 국			E U		
	'96	'97	'98	'96	'97	'98	'96	'97	'98	'96	'97	'98
합 계	589.0	527.8	277.7	196.5	169.2	120.1	182.1	167.5	95.9	111.6	93.1	57.8
수출용	146.2	164.3	138.7	54.5	53.2	51.5	36.7	46.1	41.5	16.6	22.0	21.7
내수용	442.8	363.6	139.0	142.0	116.1	67.6	145.3	121.3	54.4	94.9	71.2	36.1
기계·장치류	348.5	265.0	104.2	115.1	88.9	46.8	108.1	79.8	33.8	74.7	55.0	24.3
수출용	21.9	22.6	20.7	9.2	8.6	8.4	2.8	2.8	2.7	3.2	3.8	3.6
내수용	326.6	242.4	83.5	106.0	80.2	38.4	105.2	77.0	31.1	71.4	51.3	20.7
부 품	233.4	251.9	164.6	76.7	72.6	66.3	72.0	85.3	60.9	35.5	36.8	32.8
수출용	121.6	137.1	114.4	43.5	41.4	40.9	33.7	43.1	38.6	13.2	18.0	17.9
내수용	111.8	114.8	50.2	33.2	31.3	25.4	38.3	42.1	22.3	22.3	18.8	14.9
소 재	10.4	14.0	8.9	4.7	7.7	7.0	2.0	2.4	1.2	1.4	1.3	0.7
수출용	3.2	4.6	3.6	1.8	3.2	3.1	0.2	0.2	0.2	0.2	0.2	0.2
내수용	7.2	9.4	5.3	2.8	4.6	3.8	1.8	2.1	1.0	1.2	1.1	0.5

## 5. 製造業 稼働率 推移 및 展望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97年	10月	11月	12月	'98年 1月	'98年 展望*
製造業生産(出荷)	5.0	6.3	2.4	0.8	-7.2	3.0
內需用	1.0	0.4	-3.3	-7.5	-20.6	-7.9
輸出用	16.1	23.3	18.2	22.4	28.3	28.5
生産能力	5.6	6.7	4.8	1.9	-0.4	2.0
稼働率	79.9	80.6	77.3	76.2	68.3	80.7

\* '98年은 흑자 500억불 달성시 예상치

## 6. '98年 部門別 輸入展望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97년 실 적	'98년 전 망	증감액	증감률	감 소 요 인
축산물, 수산물	1,933	1,738	△195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li> <li>· 내수침체</li> <li>· 한우육가격의 상대적 하락</li> <li>· O-157에 따른 수입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li> </ul>
농산물	6,619	6,016	△603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과 내수침체</li> <li>· 97년 원맥풍작으로 원맥 단가 하락</li> <li>· 축산농가감소에 따른 옥수수 내수감소</li> <li>· 제과 및 음료 등 연관산업의 수요부진</li> </ul>
원유 및 광 물	29,764	21,982	△7,782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도입단가의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li> <li>- 4월 도입물 두바이유 가격이 한자리수로 하락</li> <li>- 98년 평균도입단가를 12\$로 계상할 경우 75억\$감소(12\$*8억6천배럴=103억\$, 97년 수입액: 178억\$)</li> </ul>
화 학 제 품	11,221	9,652	△1,569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가동률 저하로 수입수요 감소</li> <li>· 기존 설비확장으로 벤젠, 톨루엔 등 환식탄화수소의 수입대체</li> <li>· 설비투자의 대폭적인 감소와 연관산업의 내수위축</li> </ul>
목 재, 피 혁, 플라스틱류	9,472	7,641	△1,832	△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과 내수침체</li> <li>· 국내 건설경기 부진(97년 대비 33% 감소) 및 가구생산감소(97년대비 50%정도 감소전망)</li> <li>· 은행에서 수출입 L/C개설을 기피</li> </ul>

구 분	'97년 실적	'98년 전망	증감액	증감률	감 소 요 인
섬유류	5,911	4,385	△1,526	△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심한 내수침체로 의류산업 위축</li> <li>- 내수위주인 합성장섬유는 환율 상승으로 가격부담</li> <li>· 원면수입은 내수가 부진할 것이나 수출호조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예상</li> </ul>
귀금속류	7,027	4,852	△2,175	△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의 Usance개설 기피</li> <li>· 국민들의 '금모으기 수출운동'으로 내수부진</li> <li>· 국제금값의 하락세 지속</li> </ul>
비금속 및 제품	12,969	8,100	△4,869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침체 및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li> <li>· 전기동, 광석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세</li> <li>·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과 정부 투자 축소</li> </ul>
기계, 전자	44,597	39,854	△4,743	△10.6	<p>&lt;기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과 내수침체</li> <li>· 설비투자 축소와 연관산업의 부진</li> <li>· 자체기술개발에 의한 수입대체 노력강화</li> <li>· 충분한 재고물량과 가동률저하</li> </ul> <p>&lt;전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는 세계반도체 수요 증가 및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의 수입이 불가피하여 수입이 증가할 전망</li> <li>· 수출증가로 핵심부품의 수입 증가</li> </ul> <p>&lt;전기기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가격 상승으로 국산대체 증가</li> <li>· 내수위축 및 전력, 통신, 건설 등 연관수요 산업의 부진</li> </ul>

구 분	'97년 실 적	'98년 전 망	증감액	증감률	감 소 요 인
수 송 기 계	4,491	4,359	△13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으로 수입대체 크게 증가</li> <li>· 극심한 내수침체로 고급기종의 수입이 크게 감소</li> <li>· 국산화율 상승으로 기자재의 수입감소</li> </ul>
정밀기기, 기 타	7,728	3,864	△3,864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용이 주류인 광분석기, 측정기, 화학 분석기의 경우 수입이 50% 이상 감소할 전망</li> </ul> </li> <li>· 의료기기의 경우 국산품 대체 증가</li> <li>· 사진현상기는 국내시장 수요가 포화상태</li> </ul>
오 차 및 누락	2,884	2,884	0.0	0.0	
합계	144,616	115,327.7	△29,288	-20.3	

자료: 전경련, '98년 3월 조사('97년 100대품목을 조사하여 추정)

## 7. 産業別 施設投資 '97年 実績과 '98年 展望

(단위: 억원, %)

	'97년(실적)		'98년(계획*)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 산업	398,112	100.0	276,654	100.0	-30.5
제조업	277,649	69.7	160,156	57.9	-42.3
경공업	19,145	4.8	11,836	4.3	-38.2
음식료품	7,988	2.0	5,283	1.9	-33.9
섬유 및 의복	4,030	1.0	1,487	0.5	-63.1
나무 및 나무제품	1,573	0.4	1,111	0.4	-29.4
고무제품	2,906	0.7	2,061	0.7	-29.1
신발	2,648	0.7	1,894	0.7	-28.5
중화학공업	258,504	64.9	148,320	53.6	-42.6
종이 및 종이제품	7,321	1.8	2,634	1.0	-64.0
화학	32,240	8.1	18,782	6.8	-41.7
정유	23,333	5.9	10,458	3.8	-55.2
비금속광물	9,980	2.5	4,491	1.6	-55.0
1차금속	34,711	8.7	17,926	6.5	-48.4
조립금속 및 기계	9,987	2.5	7,840	2.8	-21.5
전기 및 전자	94,188	23.7	56,127	20.3	-40.4
조선	9,736	2.4	4,371	1.6	-55.1
자동차	37,008	9.3	25,691	9.3	-30.6
비제조업	120,463	30.3	116,498	42.1	-3.3
광업	777	0.2	540	0.2	-30.5
전력	87,409	22.0	90,527	32.7	-3.6
건설	10,195	2.6	5,605	2.0	-45.0
운송	22,082	5.5	19,826	7.2	-10.2

\*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계획 조사(97.12)에 의하면 '98년중 외화차입금, 리스, 내부자금에 의한 설비투자는 '97년에 비하여 절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97년중 이들 재원에 의한 설비투자 비중은 55.7%이었음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난으로 인하여 상기계획의 집행도 불투명함.

자료: 전경련, '98년 3월 조사

### 8. 原油導入 '97年 實績과 '98年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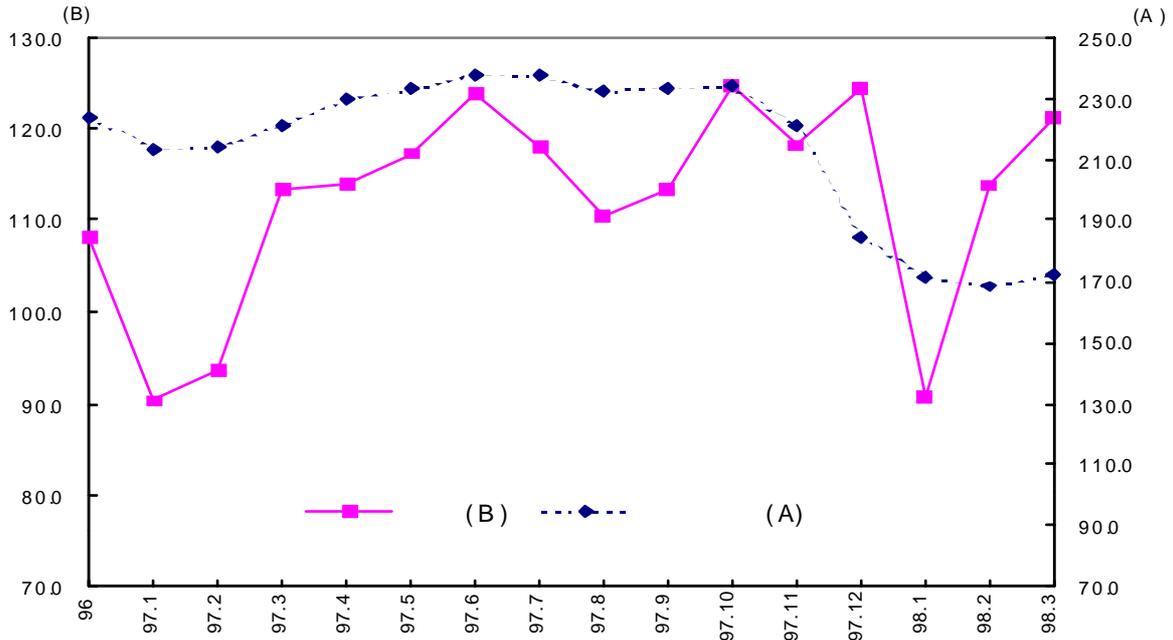
	원유도입량 (천bbl)	도입금액 (억\$,FOB기준)	도입단가(\$/b)
'96년	721,927	145.2	20.11
'97년	873,415	177.6	20.34
'98년	912,719	114.1	12.50
증감 (증감율)	39,304 (4.5%)	63.5 (-35.8%)	-7.84 (-38.5%)

### 9. 對日貿易逆調의 內容과 改善展望

(단위: 억불)

년 도	'96			'97			'98			
	수출	수입	수출입차	수출	수입	수출입차	수출	수입	수출입차	
자 본 재	45.3	196.5	-151.2	44.7	169.2	-124.4	52.2	120.1	-67.9	
기 계 · 장 치 류	13.1	115.1	-102.0	12.5	88.9	-76.3	14.6	46.8	-32.2	
	부 품	30.9	76.7	-45.8	30.9	72.6	-41.7	36.1	66.3	-30.2
	소 재	1.3	4.7	-3.4	1.3	7.7	-6.4	1.5	7.0	-5.5
원 자 재	57.7	101.4	-43.7	59.8	94.1	-34.9	69.9	85.9	-16.0	
소 비 재	44.1	5.9	38.2	43.7	15.0	28.7	51.1	10.4	40.7	
총 계	147.1	303.8	-156.7	148.2	278.9	-130.6	173.2	216.4	-43.2	

<圖表 1> 月別 輸出과 買入 外換 殘高 推移



10. 輸出 金融 回轉 期間의 推移

	매입외환(A) <sup>4)</sup>	수출(B)	C(A/B)	수출금융회전기간 (월, C×12)
1993	103.5	822.3	0.126	1.51
1994	137.7	960.1	0.143	1.72
1995	185.3	1,250.6	0.148	1.78
1996	224.0	1,297.2	0.173	2.08
1997 <sup>1)</sup>	228.1	1,237.3	0.184	2.21
1998 <sup>2)</sup>	174.2	1,350.3 <sup>5)</sup>	0.129	1.55
1998 <sup>3)</sup>	274.2	1,600.0	0.171	2.06

- 1) 1997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료
- 2) 1997년 1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자료
- 3) 민간경제계의 수출목표 1,600억불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회전기간을 2개월로 늘린 경우
- 4) 매입외환(A)이란 금융기관이 매입 보유한 수출환어음 잔액(99%를 차지)임
- 5) 2)기간 동안의 수출액을 년간치로 환산한 금액임 (IMF이후 수출액\*3)

## 11. 韓國經濟의 중장기 경제전망

### - 1998년 ~ 2002년 경제전망

	1998			1999			2000			2001			2002		
	KERI1	KERI2	KDI	KERI1	KERI2	KDI	KERI1	KERI2	KDI	KERI1	KERI2	KDI	KERI1	KERI2	KDI
국내총생산	-4.4	-5.8	-1.0	1.8	-3.7	2.9	4.1	1.2	5.1	5.6	3.3	5.3	6.1	5.1	5.5
총소비	-9.4	-9.7	-4.5	0.2	-4.3	2.7	3.9	1.2	4.6	5.2	3.2	5.2	5.7	5.0	5.4
민간소비	-9.8	-10.1	-4.6	1.0	-4.4	2.8	4.0	1.0	4.9	5.4	3.5	5.4	6.0	5.2	5.5
고정자본형성	-23.6	-23.7	-33.6	-5.9	-10.9	13.8	5.6	-6.4	10.9	9.1	6.0	9.9	10.6	9.3	8.6
설비투자	-37.8	-37.7	-37.4	-0.9	-8.6	15.0	8.6	-2.9	10.0	12.6	8.5	9.0	13.8	12.1	8.0
건설투자	-13.9	-14.2	-31.1	-8.4	-12.0	13.0	4.0	-8.2	11.5	7.2	4.7	10.5	8.8	7.7	9.0
소비자물가	8.4	8.5	8.7	4.1	4.3	4.5	3.7	3.7	4.3	3.9	4.3	3.4	5.0	5.4	3.2
경상수지	413.4	424.6	259	394.1	381.4	164	316.1	304.1	102	231.5	209.8	94	147.2	107.9	77
상품수지	425.2	434.6	272	422.1	409	192	359.7	349.5	135	270.4	252	124	178.2	143.5	107
수출	1428.5	1391.7	1472	1498.1	1411.1	1571	1593.8	1456.2	1680	1702	1507.3	1790	1857.5	1598.0	1902
증가율(%)	3.1	0.4	7.0	4.9	1.4	6.7	6.4	3.2	7.0	6.8	3.5	6.5	9.1	6.0	6.3
수입	1003.3	957.1	1200	1076	1002.2	1379	1234.1	1106.7	1545	1431.6	1255.3	1666	1679.2	1454.5	1796
증가율(%)	-29.6	-32.8	-14.5	7.2	4.7	14.9	14.7	10.4	12.0	16.0	13.4	7.8	17.3	15.9	7.8
서비스,소득&이전	-11.7	-10	-13	-28	-27.6	-28	-43.6	-45.5	-33	-38.9	-42.2	-30	-31.1	-35.6	-30

주: KERI1 : 98년 3/4분기 이후 금융경색이 완화되는 경우

KERI2 : 금융경색이 99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경우

KDI : KDI 전망치